

광양으로 떠나요... 낮엔 '관'으로 쏘옥, 밤엔 '야경'

광양역사문화관, 백운산산림박물관, 포스코홍보관, 전남도립미술관 등에서 시원한 뮤캉스

연일 폭염 경보가 발효되며 열대야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양시가 낮에는 시원한 뮤캉스를 즐기고 밤에는 야경을 즐기는 광양여행을 추천했다.

■ 광양역사문화관, 백운산산림박물관, 포스코홍보관, 인서리공원 등에서 뮤캉스

시는 뜨거운 여름 낮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광양역사문화관, 백운산산림박물관, 포스코홍보관, 전남도립미술관 등 문화와 예술, 숨이 있는 실내 공간을 소개했다.

옛 광양군청사를 재생한 광양역사문화관은 건축사적 가치, 역사성과 장소성 등을 두루 지닌 곳으로 광양 역사의 쉼을 증충이 담고 있다.

역사문화관 내 전시실에서는 한복의 주요 소재인 실크를 다채롭게 재해석한 핸드메이드 플라워 아티스트 이정미 작가의 '미 : 숨 그리고 꽃'전이 7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 동지를 든 백운산산림박물관은 기후변화 시대, 사라져 가는 숲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월요일은 휴관이다.

포스코 홍보관 'Park1538 광양'은 철이 녹는 용융점인 1538°C, 철이 재창조되기 직전의 찬란한 순간, 포스코인의 열정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곳은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대거 도입,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성장하기까지 57년간의 치열한 여정과 비

전을 다이내믹한 감동으로 전달한다.

홍보관 내 '포스코미술관'은 빛을 차단한 1층 전시장과 투명한 유리를 통해 환하고 따뜻한 광양의 빛을 만끽할 수 있는 2층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빛의 도시 광양에 문화예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빛의 여정'을 주제로 내면의 빛, 자연의 빛 등 2개의 세션으로 8월 30일까지 소장품전을 연다.

포스코 홍보관은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견학 3일 전까지 예약해야 하고, 미술관은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예코 누그르호, 아이작 총와이, 이산 등 국내외 9명의 작가가 함께하는 국제전 'Occupy: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가 성황리에 전시되고 있다. 인서리공원 갤러리 '반창고'에서는 미술의 순수한 본질과 대중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LIFE ART'팀 20여 명이 펼치는 '라이프 아트 컬렉션'이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기 쉬운 컬렉션의 기회를 일반 대중들에게 확장하기 위해 호당 2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작품가로 미술 애호가들을 맞는다.

인서리공원 인근 '남문라운지'는 물품 보관, 물, 충전, WIFI 등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문턱 없는 여행사 쉽터로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 삼화섬과 달빛해변, 구봉산숲속야영장, 배알도 섬 정원 등에서 빛나는 야경



야영, 배알도 섬 정원 등에서 빛나는 야경

시는 잠 못 드는 열대야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미디어아트와 야경을 감상하며 가볍게 거닐 수 있는 삼화섬과 달빛해변, 구봉산숲속야영장, 배알도 섬 정원을 방문을 추천했다.

삼화섬과 달빛해변 일원은 무병라이프,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 등을 비롯해 매화나무와 매들이 등 짝짜하고 이색적인 경관조명이 조화를 이룬다.

특히, 이순신대교, 무지개다리, 해오름 육교 등과 어우러져 물결치는 빛의 파노라마로 환상적인 도심 야경을 완성한다.

최근 개장한 구봉산숲속야영장도 광양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뷰에 보석상자를 얹질러 놓은 듯한 아름다운 야경으로 감성과 낭만을 저격한다.

캠핑은 하고 싶지만 야의 숙박이 부담스럽거나, 아직 캠핑에 입문하지 못한 예비 캠핑객들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캠프노드도 가능하다.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와 2개의 해상보도교로 연결된 배알도 섬 정원은 아름다운 일몰과 야경을 자랑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특히 오는 5일부터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함구네 행복한 따사락 광양'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한여름의 저녁을 감성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9월 6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질 이번 공연은 미술, 퍼포먼스, 국악, 용지르놀다리기, 진월전어잡이소리 등의 다채로운 버스킹과 이벤트로 가득 채워진다.

광양/신선호 기자



완도~모도 운항 신조 여객선 '섬사랑 2호' 취항

완도서 모도 1시간 8분 소요, 기존 운항 시간보다 15분 단축

완도군은 지난 1일 청산 모서항에서 '완도-모도' 항로를 오가는 신조 국고 여객선 '섬사랑 2호' 취항식을 가졌다.

취항식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 건조된 '섬사랑 2호'는 185톤 차도선으로 여객 정원 80명, 운항 속도 14노트, 적재 능력은 중형 승용차 기준 15대이다.

기존 여객선에 비해 운항 시간이 15분 단축됐으며 차량 적재 능력도 향상됐다.

'섬사랑 2호'는 7월 2일부터 완도에서 모도까지 편도 21km를 하루 3번(완도 출-7:10, 11:00, 15:30) 왕복 운행한다.

기존 섬사랑 2호는 울해 선령이 만료되어 안전상의 우려와 한정된 승용 능력으로 도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

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군에서는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예산 확보, 운영 관련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주민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신규 여객선 취항으로 여객들의 안전 확보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더 크고 빨라진 섬사랑 2호가 취항하면 해상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도서 지역의 농수산물 수송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면서 "여객 안전 확보에도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일, 군 소속 직원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견문 확대를 위하여 국내 대표 조력발전소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진행된 이번 견학은, 태양광·풍력과 달리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는 조력 현상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인 조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세일 군수와 군 소속 직원들

영광군,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 방문

군 소속 직원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조력발전소 견학

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운영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력발전 시설을 직접 견학하였다. 이어, 발전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력발전의 기술적 특성과 경제성, 환경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조력발전이 조

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임을 재확인하였다.

오는 9월에는 수상태양광의 지역 내 도입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 합천군의 합천댐에 조성된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발전사업 경제성과 구조물 안정

성을 조사하고 환경·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수상태양광 발전소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태양광·풍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들로 구성하는 에너지 믹스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영광군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원화된 에너지 믹스 모델을 지역에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3일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부의장과 의원, 기관단체장, 경로당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록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록경로당은 노인인구가 약 90%인 달하는 소록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생활 및 친목 도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반영해 개소했으며, 연면적 184㎡ 규모로 남녀 이용 공간이 분

고흥군, 소록경로당 개소식 개최

소록도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 마련

리대 있다. 해당 경로당은 '소록도 사랑의 집' 게스트하우스 내에 마련됐다.

정규급 노인회장은 "소록경로당 개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록경로당 개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흥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록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모범이 되는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새롭게 마련된 소록경로당에서 즐거운 답소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든든한 쉽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총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로당 등록 회원 수, 일일 평균 이용 수, 난방유형에 따라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양곡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강진, 빈집리모델링 입주자 모집 완료

강진군이 2025년도 제2차 빈집 재생사업 대상지로 총 47가구를 추가 선정하고,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 입주자 면접 심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대상지 확대와 입주자 선발은 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상을 겪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요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진군은 지난 6월 말 입주자 면접을 거친 후 총 47가구의 빈집에 대해 입주 신청자들의 주거 필요성, 정주 의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젊은 부부나 다자녀 가정의 지원이 많아 최종 선정된 입주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들로 구성돼 주목을 끌었다.

한 관계자는 "면접을 진행하며 강진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서 찾아왔다는 지원자들이 많았다"며 "마을 주민들은 오랜만에 어린이집

차량이 마을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감격해했다"고 심사 과정을 전달했다.

실제로 한 입주 예정자는 "아이가 매일 흠길을 걸으며 자연과 함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있었는데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사업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입주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2차 빈집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가구는 모두 장기간 방치돼 있던 노후 주택이지만, 구조 안정성과 위치, 인프라 접근성을 종합 평가해 재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 분류됐다. 군은 선정된 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입주자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에 적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강진군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내 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